

국힘 당권 경쟁 황교안은 김기현, 천하람은 안철수 공격 왜?

보수 대 중도 지지층 대체로 겹쳐
黃 “金 투기 의혹...즉각 사퇴하라”
千 “安 우왕좌왕 본인 위치 잃었다”
양강 金·安 결선투표 염두 반격 자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선두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이들을 맹렬히 추격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최근의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천, 황 후보는 각자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추격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도 성향의 천 후보는 수도권·청년층에서, 강성 보수 성향의 황 후보는 영남권·장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와 황 후보, 안 후보와 천 후보의 지지층이 대체로 겹치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각각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위축되는 '제로섬'의 관계와 비슷한 상황이 됐다.

현재 황 후보는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고리로 삼아 김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15일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의 의혹을 가장 먼저 거론한 것도 황 후보였다.

이날엔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더는 거짓말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후보도 안 후보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천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안철수는 우왕좌왕 어불성착하는 사이에 본인의 위치를 잃었다"고 말했다.

'윤심'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나 당정관계 논란 등을 둘러싼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원들은 천하람 대 김기현의 구도로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 안 후보는 상호 견제에 집중하며 천, 황 후보를 구태여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김, 안 후보는 여론조사상 지지율 30~40% 내외에서 앞치락뒤치락 다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 새로 도입되는 결선투표제를 고려하면 천, 황 후보의 고정표 흡수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황 후보이지만, 김 후보는 뒤늦게 가세한 안 후보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안 후보에 대해 "입당 1년도 안 됐다" "지휘한 선거는 다 졌다"며 경쟁력을 평가절하했고, 천 후보에 대해서도 "한 번도 선거를 지휘해보지 못했다" "본인 당선도 안 됐는데 선거를 얼마나 잘 아는지"라고 말했다.

다만 황 후보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총선을 지휘했는데 다시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비판에 다소 온도를 낮추는 해석도 나온다.

'울산 땅 의혹'에 대한 반박도 김 후보가 직접 황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캠프 대변인의 입을 빌리는 양상이다. 황 후보와의 극한 대립은 피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또는 안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연대는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정치는 항상 타협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 역시 천 후보를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후보에 대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에서 20년 있었다"며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냈지만, 천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는 말을 세우지 않았다.

안 후보는 황후 천·황 후보와 관계 설정에 대해 "결선 진출자가 정해지면 합종연횡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국힘 당권주자 TV토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15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국힘 “민주당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짐 내려놓으라”

비대위 총출동 맹비난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라도 이재명 대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법절차와 재판에 전념하게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의 부정·비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며 "민주당 정신 차리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수감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을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 못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절절하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을 던져버리고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고 막달을 쏟아내며 국민을 협박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성 의장은 지난 18일 진보 시민단체들이 주발 집회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 붙은 풍선 샌드백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저주와 증오의 집회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냐"고 몰아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주에는 대통령 부부 인형을 세워놓고 활쏘기를 하더니 갈수록 태산"이라며 "주말마다 명분 없는 정치집회를 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이들에게 저주와 패륜, 폭력을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저주와 패륜,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집회 측은 이를 당장 중단하고 관계 당국 또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독하고 법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서 불법은 엄벌,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6주만에 40%대 회복

리얼미터... 긍정평가 3.5%p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5%포인트(p) 오른 40.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월 1주(40.9%) 이후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6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2.8%p 내린 57.5%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0%p ↑), 부산·울산·경남(7.6%p ↑), 광주·전라(6.4%p ↑) 등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9.7%p ↑)와 60대(3.6%p ↑), 20대(2.8%p ↑), 40대(2.5%p ↑)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0%p ↑), 보수층(2.8%p ↑)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p 오른 45.0%, 더불어민주당이 2.9%p 내린 39.9%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6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밖에 정의당은 전주와 변동 없이 3.3%를 기록했고, 무당층 비율은 0.1%포인트 늘어난 10.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정부, '깜깜이 회계' 노조 제재 초강수 카드

지원 배제·세액공제 재검토

과태료 부과·현장조사도 추진

정부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

노조와 회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 개혁의 출

정부, '깜깜이 회계' 노조 제재 초강수 카드

발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방침을 전제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겠다"고 했다.

과태료 액수는 1·2차 각 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식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